



■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30. 프란세지나 (Francesinha) 2

"이 기름진 소스가 찰찰 넘쳐 흐르는데 이 위에 더 부어 먹으라고?" 소스가 담긴 작은 주전자를 앞에 놓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0센티가 족히 넓어 보이는 프란세지나와 그 주위에 수북이 쌓인 감자튀김도 우리를 주눅들게 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견줄 수 없는 궁금증과 식욕이 앞서 나갔다. "먹자! 용감하게 먹어 보자!" 우리는 동시에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커다란 네모 덩어리를 반으로 잘랐다.

햄과 소세지, 그리고 비프 스테이크까지 잔뜩 들어서 나이프로도 쉽게 찢어지지 않으리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사뿐하게 잘라졌다. 한 쪽을 옆으로 밀어보니 단면이 보인다. 층층이 쌓인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커켜이 쌓았는데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포개어져 있다. 그 위로 소스가 줄줄 흘러내렸다. 살면서 보아 온 음식 중에 기름지고 느끼하게 보이는 것으로 치자면 진정 탐이 아닌가 싶었다.

"엄마, 이거 먹고 소화제 먹으면 되니까 맛있게 먹자!" 샌드위치 단면을 내려다 보고 있는 나와 달리 R은 씩씩하게 말하면서 나이프로 한 조각씩 찢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오물오물 씹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꿀꺽 삼키고는 '와!' 하고 감탄사를 외쳤다. 나도 한입 씹어 먹어 보았다. 따끈하고 두툼한 한 입이 입안으로 들어 왔다. 음.....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 맛있다! 맛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는 처음 먹어 본다!

프란세지나를 한입씩 먹어 본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만나 의심할 정도로 태도가 돌변하여 이 낯선 포르투 별미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칭찬하며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 "하나도 느끼하지 않네? 오히려 고소하고 담백하니 정말 아름다운 맛이네?" "정말 놀랍다!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맛일 줄 꿈에도 몰랐어! 진실로 다정하고 친절한 맛이다!" "부드럽고 적당히 씹히는 맛도 있고

짜지도 않고 미각이 풍성해지는 느낌이야!" "엄마, 엄마,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 더 부어서 먹자!"

우리는 프란세지나 맛의 비결이 그 정체모를 황갈색 소스에 있다는 것을 곧 간파했다. 줄줄 흐를 정도의 적당한 농도에 뜨끈할 정도의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그 소스는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이 그 속에 해엄치며 본연의 맛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그 이상으로 뛰어넘어 전혀 다른 맛의 음식으로 재탄생하게 만드는 마법의 소스임에 틀림 없었다.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모습과는 달리 전혀 느끼하지 않았고 도리어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시원한' 맛이였다. 그 개운한 맛이 층층이 쌓인 단백질과 지방의 느끼함을 완벽히 없애 주었다. 우리는 결국 그 작은 주전자의 소스를 다 비워내고 말았다.

소스의 정체가 궁금해진 우리는 앞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에게 이게 무슨 소스인지 물어 보았다. 그들은 씩 웃으며 '카페 산타아고 비법 소스' 라 말했다. 그래도 뭐가 들어갔는지 재료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그저 토마토가 많이 들어갔다고만 말해 준다. 아, 토마토가 들어가서 시원한가? 그런데 어째서 색깔은 노랗지? 비법 소스의 정체는 끝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우리는 행복한 기분으로 프란세지나를 천천히 즐기면서 먹었다. 포르투 근처에서만 한다고 하는 현지 특산 야채로 조리한 야채 수프 칼두 베르제도 역시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이었다. 단순하고 평범하게 보이는 음식들이지만 모두 포르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구나. 소화제 먹을 각오까지 했던 것은 정말 부질없는 걱정이였다. 진정 맛있었고 속도 편했고 기분도 마음도 완벽하게 만족스러웠다. 훗날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두고두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먹고 싶었던 음식은 다름아닌 포르투의 프란세지나였다. 사실 지금도 그렇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714) 224-8394 OC

Buena Park Nursing Center ★★★★★

부에나 팍 양로병원

-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및 투석관리, 스페셜 통증관리, 튜브영양법, Wound Care, TPN 등
- ▶ Subacute Unit
Respiratory Therap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재활치료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물리치료 (PT)
한국인 스텝 / 한국인 소셜워커	작업치료 (OT)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언어치료 (ST)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어: 562-240-3516 www.buenaparknc.com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이광혁 내과 : 일반내과 전문의

(JOHN K. LEE, M.D.) 노인과 : 메디케어 전문의

건강 검진 스페셜 \$149

1. 내과 전문의 상담, 진찰 및 치료 (1회)
2. 종합혈액검사: 혈당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호르몬검사, 종합콜레스테롤검사, 중성지방검사, 전해질검사, 혈중단백질검사, 칼슘검사, 빈혈검사, 백혈구검사, 적혈구검사, 혈소판검사, 요산검사, 지방간검사, 당화혈색소(HbA1c)
3. 정밀소변검사: Color, Character, Specific Gravity, PH, Glucose, RBC, Protein Ketones, Blood, Urobilinogen, Nitrite, WBC, Bilirubin, Epithelial Cells, Bacteria, Casts, Crystals

이민국(USCIS) 신체검사 지정병원

진료시간: 월 - 금: 8:30am ~ 5:00pm 토, 일: Closed

Tel: 714.879.8700
 400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각종보험(PPO), 메디케어 플랜 받습니다.

John K. Lee, M.D.
 미국 내과 보드 전문의
 미국 노인과 보드 전문의
 Diplomat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CAQ in Geriatric Medicine
 Member,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Member, American Geriatrics Society
 Member, American Medical Association